

전라북도 요트산업 유치 방안

2007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07. 9.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박형창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1. 요트사업 유치의 필요성

- 현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도래하면 My Yacht 시대 변화에 따라 요트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세계시장규모가 2010년 210억달러로 전망하며, 국내수요만 2만 2,0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요트산업유치에 제반 여건이 양호한 전북지역에 요트산업을 유치하여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

2. 국내외 요트산업 추진현황

□ 해외

- 현재 세계 요트건조 시장은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주도
-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요트 제조업에 뛰어들었으며 대만은 요트 수출로 연 2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 국내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중소조선연구원에 해양장비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한국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통해 산·학·연 연구사업을 시작함
-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마리나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급증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곳은 41개소임

3. 전라북도 요트산업 유치여건 분석

□ 요트산업 유치여건 분석

- 비교분석 결과 서울은 스포츠교육, 강원도는 레저스포츠지역, 경남, 전남지역은 마리나시설, 전북은 요트제조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요트산업을 유치하려면 요트제조 및 부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 요트산업의 전라북도 유치 가능성

- 전북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부품소재기술과 접목하여 연계
- 조선업의 군산유치로 인한 선박제조업의 인프라 구축
- 환황해권 요트부품 및 요트수출공급 기지로 도약가능
- 새만금 사업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활용
- 국내 요트 수요 폭증
- 외국인투자 관심고조

5. 전라북도 요트산업유치 추진방향

- 요트제조 및 부품산업에 포커스를 맞춰 요트산업을 유치
- 산업자원부가 “2015년 10대 강국비전” 핵심부품소재 사업으로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산업발전법 제28조)
-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해양레저산업에 행정적 지원 활용
- 현재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 요트산업 지원 수혜방안 강구
- 부품소재기술원, SLS조선(주), 현대중공업 유치에 따른 요트산업 연계방안 마련

⇒ 전라북도 지역에 제조업 요트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개발사업 지원과 과학기술원의 부품소재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하여 요트부품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SLS(주), 현대중공업 등 민간사업체가 요트제조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6. 기대효과

-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업특화단지 조성 가능
- 고용창출효과, 기업유치 및 산업연관효과 발생, 외화획득 가능
- 첨단부품산업·요트부품산업 집적화단지 구축
- 요트부품소재업체 입주에 따른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
- 요트제조 산업과 연계한 해양체험관광 상품
- 요트건조와 함께 요트대회 유치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7. 정책제언

- 요트산업 타당성 용역 발주
- 요트산업 유치 포럼 개최
- 요트산업 유치를 위한 추진단 구성
- 국내·해외 요트산업관련업체 현장 방문
- 요트산업유치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 산·학·연·관 요트제조산업 연구네트워크 구축
- 요트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제시
- 요트산업 유치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목 차

1. 요트산업의 정의 및 필요성	1
2. 요트산업의 전망	2
3. 국내·외 요트산업 추진현황	4
4. 전라북도 요트산업 유치여건 분석	9
5. 요트산업의 전라북도 유치가능성	11
6. 전라북도 요트산업유치 추진방안	13
7. 기대효과	17
8. 정책제언	19

전라북도 요트산업 유치방안

1. 요트산업의 정의 및 필요성

- 요트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야겐(Jagen)의 ‘사냥하다’, ‘쫓는다’라는 의미이며 레저·경기용 덩기(Dinghy:6m 이하)급과 연안·대양 항해용 크루저(Cruiser)급으로 분류됨
 - 레저·덩기급 요트는 동력 없이 풍력에 의존하여 조종자의 체중이동과 돛의 방향에 따라 조종하도록 건조되며, 크루즈급 요트는 동력추진기관과 풍력을 이용하여 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음
- 요트산업(yacht industry)이란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갖는 요트를 설계, 생산하는 조선공학과 디자인이 미려하면서도 거주 및 운항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인간공학이 접목된 산업을 의미함
 - 요트를 만드는 제조업, 요트를 보관·유지·보수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 그리고 요트를 사고 쉽게 탈수 있는 금융, 보험과 선수 훈련양성 등의 해양 레저 서비스산업 및 제조산업을 말함
- 이러한 요트산업은 현재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가 미래 첨단기술 해양관광 산업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해양 레저산업개발 계획¹⁾을 볼 때 해양레저 선박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1) 해양레저 장비산업에는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수상스키(water ski), 페러세일(para sail), 조정(rowing board), 카약(kayak), 카누(canoe), 워터슬레드(water sled), 수상자전거(water boat), 서프보드(surf board), 노보트(paddle boat) 등이 있으나 전라북도는 부품소재기술과 접목하여 요트제조 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요트산업을 특화하여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향후 시장여건이 아주 좋고 요트산업유치에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진 전북지역에 요트산업을 유치하여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

2. 요트산업의 전망

□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요트수요 증가

- 국민소득향상에 따라 기존의 내륙관광에서 해상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My Yacht 시대가 도래함. 특히 국민소득 2만 불시대가 도래하면 요트 수요는 급증 할 것으로 예상²⁾
- 요트 수요의 증가로 서해안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인프라 확대, 법적 제도적 정비 및 인력 양성 등 요트산업의 유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신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성장잠재력 보유

- 앞으로 발생될 세계요트 수요는 2004년 151억달러(약 14조원)이던 세계시장규모가 2010년 210억달러로 전망함³⁾
 - 현재 한국요트인구는 7,000여명, 요트 수는 930여척에 불과하나, 2015년 국내수요만 2만 2,0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조선강국이나 요트건조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국민의 요트보유량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며, 현재 요트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앞으로 요트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요트 공급체계를 미리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인구 1천명당 요트 보유량은 북유럽 143척, 일본 3.6대인데 비해 한국은 0.043대에 그치고 있음

2)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 6천 달러수준부터 요트수요가 연간 30% 급증하였음

3) 국정원 조사 자료



<그림 1> 인구 1,000명당 요트 보유량

- 이와 같이 요트 수요시장 증대에 맞춰,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산업국으로서 요트산업에 있어서도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요트산업 인프라 여건이 아주 양호함

□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요트산업 관심 고조

- 국내 조선업체들이 대형 선박위주의 제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레저선박과 요트생산으로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국내 해양 환경과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어울리는 레저 요트 개발에 착수하였음
- 이에 따라 조선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라북도는 3대 성장동력산업인 기계부품산업과 연계하여 요트제조 조선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국내외 요트산업 추진현황

□ 해외 요트산업 사례

- 현재 세계 요트건조 시장은 미국(연 2만척), 프랑스(7,900척), 영국(3,300척)이 독과점하고 있고, 수출도 프랑스(4,300척), 미국(2,100척), 독일(1,900척)로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요트 제조업에 뛰어들어 성행 중이며 대만은 요트수출로 연 2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현재 후발국인 대만, 태국, 크로아티아 등이 요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만은 남부 항구도시 카오슝에 45만m²가 넘는 ‘신다요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태국은 2,500만달러를 들여 푸켓을 아시아 대표 요트항으로 육성한다는 ‘로열푸켓마리나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푸켓 킹스컵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음. 또한 태국은 200%에 달하던 요트수입세를 2004년 2월 완전 폐지함
 - 크로아티아도 지난 91년 독립이후 세계은행 등의 지원자금을 두브로닉 마리나 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 매년 6만명의 요트 인구가 방문할 정도임

- 이외에 뉴질랜드, 네덜란드, 인도 등에서 요트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을 올리고 있음

<표 1> 해외 요트산업 사례

국가	요트 산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위한 요트제조업체인 kingship marine는 두 대의 요트를 제조하여 한대는 유럽업체가 구매하였고, 다른 한대를 마케팅 중임. - 세계 각국에서 기술과 자원을 도입해 운영, 설립 및 운영자금은 현재 홍콩에서 조달하고 있고, 싱가포르 출신의 세일즈/마케팅 전문가를 고용, 미국과 네덜란드의 유명한 요트 설계사들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음. - 요트 제작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나 저가전략으로 이탈리아, 독일, 미국 제품보다 1/3가격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kingship marine 사는 현재 남반구에서 가장 큰 요트업체 중에 하나인 호주의 gold coast city marina를 통해 약 20~25명의 관심 바이어를 확보해 놓은 상태임. - 중국의 재빠른 기술 복제능력과, 한번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에서 수많은 동종 업체들이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것을 안심할 수 없음.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요트관련 산업 매출액 US\$ 22억 달러로 성장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여가용 요트 및 보트제작 또는 그와 관련된 업체의 수는 1,300여개에 이르며 약 만 명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음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이탈리아 이은 세계 3대 대형요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창조적 디자인으로 고객 맞춤 형태의 첨단 호화요트부문에서 경쟁력 확보함. - 약 700여개 이상의 기업과 약 7,000명의 고용인이 이 요트 비즈니스에 종사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네덜란드 전체 선박 매출액 13억 7000만 유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과학기술과 새로운 제작기법의 도입을 통해 대형 요트생산에 있어 세계 1위이며, 생산의 80%는 해외로 수출함. - 두바이 부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페리티요트(이탈리아)는 주문해도 3~4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임. 이 요트업체는 2006년 순이익만 3,300만달러, 국내에서도 아주 그룹이 판권을 확보하여 10억~40억원대 페레티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함.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부자들 사이에 요트가 인기를 끌면서 요트시장 활기. - 이탈리아 페레티, 미국 베이라이너, 영국 프린세스와 선시커 등 세계 최대 요트 제조업체들이 인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럭셔리 요트제조업체에서는 5년안에 인도 요트시장은 약 4억달러의 매출을 전망함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요트산업은 2005년 세계 5위로 수출액이 2억달러를 넘어섬. - 중국, 터키, 남아공의 저가공세로 제조업체 70%이상이 문을 닫았으나 고급화전략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며 기존 중소형서 대형 호화요트 건조로 이탈리아, 미국과 함께 대형호화요트 건조 3대 국가로 경쟁력을 확보함

□ 우리나라의 요트산업 현황

- 80년대 초 현대그룹의 자회사인 경일산업과 일부 중소 조선소에서 OEM으로 건조를 추진했으나 기술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일부 업체가 외국업체와 손잡거나 산학협력으로 국산요트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
 - 선진국의 경우 레저 선박 관련 모든 기술이 성장기와 성숙기에

- 도달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레저 선박의 고속 선박용 엔진, 요트용 세일 제작, 요트용 마스트 제작, 레저 선박용 기자재 분야의 기술은 미개발 단계임
- FRP가공기술, 선실 설계 및 내부 인테리어, 마리나 설계 분야의 기술은 개발단계이며 대형 조선산업은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양연구원이 주도하고 어드밴스드 마린테크가 직접 설계외형, 내부구조 재질 등을 국산화하여 2년만에 국민보급형 레저선박인 세일링요트 ‘코르디30’을 제작한 바 있음. 이는 국산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향후 국내요트의 제조 및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중소조선연구원의 해양장비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통해 산학연 연구사업이 시작됨
 - 해양수산부는 국산형 요트인 ‘패밀리 보트’ 연구사업을 지원한 바 있음
 - 2004년에는 수요 창출을 억제하던 특별소비세 20%가 폐지되었고, 호화선박에 대한 지방세가 개선됨
-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마리나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급증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곳만도 무려 41개소에 이름
 - 경남 남해군은 이미 지난해 2006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해, 입지선정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쳤고, 올해 들어서도 연초부터 민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또한 일본의 어항을 개량, 보완한 형태로 760억원 규모의 마리나시설을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투자자와 체결할 계획임
 - 전라남도는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함평, 여수 마리나를 포함해 10개 연안 시군 20곳에 무려 2,800여척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수자원보전지구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며, 각종 양식장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표 2> 국내 마리나 현황

요트장	위 치	비 고
부산요트경기장	부산시 수영만	370척 수용
충무 마리나리조트	경남 충무시	92척 수용
진해 마리나 리조트	경남 진해시	15척 수용
한강 양화 요트장	서울시 양화대교	소형 세일링 요트용
여천 요트장	전남 여천시 소호동	"
아산만 요트장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
강릉 요트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
대천 요트장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
후포 요트장	경북 울진 후포해수욕장	"
제주 중문 마리나	제주시 중문	"

□ 국내 지자체의 요트산업 추진사례

-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요트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강 양화지구와 선유도 사이에 요트 2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시설을 내년에 건립할 계획
- 강원도 속초는 조양동 청초호 주변 6,600평의 부지에 요트 1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요트정비소, 주차장 등의 마리나시설 설치
- 경남지역은 당항포, 고성군, 통영시에서 마리나시설, 요트관련 학교를 추진하고 있음

- 전남지역은 목포, 여수, 신안에서 마리나시설을 도입하여 해양 관광화 할 계획이며 영암 대불공단에서는 한국형 요트개발 연구에 돌입하고 있는 상태임

<표 3> 국내 지자체의 요트산업 추진사례

지자체	요트 관련 산업 추진내용
서울	-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사업소는 요트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강 양화지구와 선유도 사이에 요트 2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시설을 2008년 건립할 계획
강원	- 강원도 속초는 조양동 청초호 주변 6,600평의 부지에 요트 1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요트정비소, 주차장 등의 마리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 정부의 속초항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2008년 착공 예정
경남 지역	당항포 - 마리나 시설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실시설계사업비 3억원을 2007년 2월 중에 발주, 지중해 연안 일대에 버금가는 요트산업의 메카로써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행
	고성군 - 마동호를 요트계류시설로 활용하고 남포항에서 당항만간 운하건설로 수질개선과 요트를 소통할 수 있는 방안마련 - 현재(07.7.24) 조선특구로 지정되어 조선기자재 및 선박건재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장기계획에 요트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음. 요트와 해양레포츠 관련 학교를 유치하고 조선특구유치와 연계한 요트제작수리소 설치
	통영시 - 경남에서 유일하게 요트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기존 시설확대와 전국규모 요트대회 유치, 요트동호회 육성, 대학, 고교내 해양스포츠학과 신설 및 해양시범학교 신설 방침임.
전남 지역	목포 - 목포해양경찰서 뒤쪽 해안을 요트산업기반시설로 설정, 2008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하여 요트 5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를 조성하기로 함
	여수 - 종화동 구항과 여수신항 화양지구, 웅천지구 등 4곳에 각각 20억원에서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고 200척의 요트를 수용하는 마리나 시설 추진 중임
	신안 - 압해면 일대 150척 수용 마리나와 테마파크 조성 등에 1조원을 투입계획 용역에 들어간 상태. 증도, 지도, 흑산면 등 전체 7곳에 각각 15척에서 200척까지 수용이 가능한 마리나 시설을 추진함
	영암 - 대불산업단지 내 푸른 중공업이 추진 중인 한국형 요트 개발과 산업자원부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는 목포해양대와 대불대의 요트산업기지 조성 및 요트설계 연구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은 요트산업이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한 상태임

4. 전라북도 요트산업 유치여건 분석

□ 요트산업 유치여건 분석

- 요트 산업을 크게 2차 제조업과, 3차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제조업, 마리나산업, 금융, 보험, 선수 훈련양성의 교육산업으로 세분화 할 수 있음

- 요트산업의 유치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우위비교분석을 통해서 요트산업 유치부문을 모색하고자 함. 따라서 자연여건(레저) 요트제조여건, 마리나산업여건, 금융여건, 스포츠양성교육여건, 지방자치제의 추진여건 등을 비교분석함
 - 요트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해양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고 수심이 10m 이상 유지되는 지역이어야 함. 따라서 경남, 전남의 다도해지역이 적합함. 이 지역에는 마리나, 해양훈련 교육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요트제조산업은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에 많은 조선업체들이 산재하여 있음. 또한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가 2005년 부산광역시에 설립되어 요트산업과 관련한 부품, 기술, 인력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전북지역은 요트산업은 미개발단계이나, 군산산업단지내 SLS조선(주) 투자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선부품산업의 잇단 유입이 예상되며, 부품소재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IT기술과 연계한 요트 제조산업의 잠재력이 큼. 특히 인근 중국의 노동을 활용한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마리나 산업은 요트의 보관·유지·보수 여건이 알맞은 경남과 전남의 다도해 지역이 적합함. 전북지역도 선유도일대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채용조달은 민자기업이 대부분이나 해양관광활성화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 스포츠선수 육성과 레저스포츠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시설유치가 적합한 곳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경남과 전남의 다도해상지역이 매우 양호함
- 지자체의 추진은 요트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연여건이 양호한 경남과 전남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펼치고 있음. 전라북도는 요트산업에 대한 인식이 뒤늦어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미흡하였음. 그러나 레저요트산업을 제외한 요트제조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극 유치요망
- 대외주변 여건은 요트레저 관광객 수요가능성, 요트제조업 기술인프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술인프라와 노동여건, 수출시장확보⁴⁾ 등 전북지역이 매우 우수함

<표 4> 전라북도 요트산업유치에 따른 지역별 여건 분석

여건 부문	서울	강원	경남	전남	전북	비고
자연여건	강변으로 스포츠훈련지 기능	해양여건불리	물과 바람, 수심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님	물과 바람, 수심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님	해양여건불리	남해 안지역이 우수
요트제조산업	인프라여건 불리	인프라여건 불리	인프라여건구비	인프라여건 일부구비	인프라여건구비, 아주양호	경남, 전남, 전북이 우수
마리나산업	자연여건상 불리	자연여건상 불리	자연여건양호 인프라구비	자연여건양호 인프라구비	자연여건일부양호	경남, 전남, 전북 일부지역 우수
금융, 보험재원조달	민자투자유리	민자투자불리	국비조달용이	국비조달용이	국비조달용이	국비조달용이
스포츠양성교육	훈련장 확보로 유리	자연여건이 안 좋아 불리	자연여건이 양호하여 교육시설유치 유리	자연여건이 양호하여 교육시설유치 유리	자연여건이 일부 양호하나 다소불리	서울, 경남, 전남이 우수
지자체 추진의지	추진미흡	추진미흡	적극추진중	적극추진중	지식 및 인식 부족	경남, 전남이 선두주자
대외 주변여건	수도권 레저스포츠 관광객 유치 용이	관광객 용이	유치 남해안관광벨트추진에 따른 관광객 증가	남해안관광벨트추진에 따른 관광객 증가	인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으나 제조업 부문에는 전북이 가장 우수

4) 전북지역은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의 노동을 활용한 비용절감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국내수요로는 아직 요트수요가 불충분하며 우선 수출에 주력해야 하므로 인접한 중국 수출시장이 있어 유리함

- 비교분석 결과 서울은 스포츠교육, 강원도는 레저스포츠지역, 경남, 전남지역은 마리나시설, 전북은 요트제조산업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요트산업을 유치하려면 요트제조 및 부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요트산업의 전라북도 유치가능성

□ 기계 및 첨단기술 인프라 구비

- 전라북도는 현재 세계유수의 자동차 3사(현대, GM대우, 타타대우)가 가동 중에 있어 요트제조의 기본기술인 모터 기계산업이 아주 발전되어 있음
- 광전자, KEC, KCC등의 경쟁력이 확보된 IT업체가 집적화 되어 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차세대 기술개발, 상용화, 성능평가, 표준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핵심 나노기술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어 요트의 첨단기술에 활용할 수 있음
- 전북의 신 성장동력산업인 부품소재기술 개발에 요트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요트제조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 군산의 선박제조업체와의 연계

- SLS 조선(주)이 1단계 사업으로 군장산업단지 내 8만 7,000평 부지에 800억원을 투입해 블록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투자규모를 당초의 2배인 1,500억원으로 대폭 늘려 공장 설계를 마치고 착공 중임
- SLS 조선(주)의 군산유치로 인한 선박제조업의 인프라 구축 및

확대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 및 제조관련 부품산업체의 잇단 유입이 기대됨

- 현재 대형 선박업체들이 요트제조산업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이는 요트산업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두산인프라코어의 유치 및 투자 확대로 요트산업 인프라 구축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음
- 현대중공업이 1조원 가량 투자하여 선박 부품업체를 군산지역에 유치할 계획에 있어 요트제조 산업과 연계 할 수 있음

□ 서해안의 지정학적 입지로서의 가능성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대전~군산 고속도로, 김제공항, 군산자유무역항 등 도로·철도·항만을 통한 입체적 여건이 매우 뛰어나며 환황해권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요트산업 수출 중심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님
-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인접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 중국의 인적자원 활용가능
 -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기술우위 확보 및 환황해권 요트부품 및 요트수출공급기지로 도약 가능함
- 요트건조산업의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 운영이 가능하여 전라북도의 산업경영구조에 유리함

□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추진과 연계

- 새만금 사업 활용방안으로 신항만과 수변레저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 요트 수요 확대 가능함
 - 서해안에 맞는 요트를 개발하여 수요창출과 동북아시아 최대 요트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함

□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 최근 대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증대되며 국가 산업단지 중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SLS 조선(주)의 입주에 따라 소형선박 위주의 요트제조업 생산이 되도록 유도

6. 전라북도 요트산업유치 추진방안

□ 전라북도 요트산업 유치 방향

- 전라북도내 요트제조 산업의 공급기지를 조성하여 수출위주의 고부가 핵심부품소재형 요트산업구조를 조성해 나가야 함
 - 전라북도는 부품소재형 요트부품개발로 수출위주의 고부가가치 요트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요트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도와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레저스포츠가 아닌 제조 및 부품산업에 포커스를 맞춰 요트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
- 군장산업단지 및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에 외국 핵심부품업체 및

- 국내외 기술협력업체를 유치하여 요트핵심부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강구
 - 경남지역은 해외 요트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여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요트산업을 위한 관련 국내기업과 해외의 기술협력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타도보다 발 빠르게 적극적인 유치전략이 수행되어야 함
 - 요트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및 인적자원지원을 지자체에서 적극 보장·육성하여 산·학연계체제를 구성하여야 함
- 새만금 수변 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비응도 관광어항, 새만금 신항만 복합항만기능과 연계하여 요트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

□ 정부 및 민자 지원제도활용

- 산업자원부가 “2015년 10대 강국비전”핵심부품소재 사업으로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산업발전법 제28조)
 - 군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 지원 방안 강구('07.3.14 세미나 개최)
 -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해양레저장비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군특회계사업으로 기존 항만의 마리나시설 유치 국비를 2005~2007년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가 신청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옥포, 고성 당항포, 전남 함평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추진

- 마리나 시설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항만 친수공간 내 마리나 시설 설치 추진
- 동·서·남해 권역별 해양레저·스포츠 거점항 개발
- 마리나 시설 모델 개발
- 보급형 해양레저장비 개발 지원 및 검사제도 도입

- 재정경제부, 해양경찰청,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시행하고 있어 요트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여 해양레저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재정경제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남 여수시 해양레저 특구를 지정하여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 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고가 선박에 적용되는 지방세인 등록세의 시사표준액을 모터보트, 요트 등의 해양레저장비에 대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 요트산업에 대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놓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표 5> 참조)

<표 5>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의 단계별 지원 가능사업

구분	기술개발단계	기술사업화단계		판로개척 지원단계		
		기술 공개	창업 지원	자금	경영 지원	산업 인프라제공
직접제공	- 회원사의 연구개발 참여 인센티브 부여	×	×	×	- 기업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	×
네트워킹	- 대학과 교류협력체결 알선 - 연구 및 전문위원 알선 - 지역별 해양레저장비산업체 교육훈련 기획	×	×	- 지역 금융기관 벤처 자본 알선	- 세무, 법무, 특허 등 전문가 알선 - 교육훈련 기회 알선 - 상설 판매 전시장 알선	- 연구시험, 설비공간 알선
교육훈련	- 기술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설	×	- 창업정보 제공	×	- 마케팅, 법률, 회계 전문 교육 실시	×
자문대행	-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및 홍보	-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대행	- 자문,상담	×	- 마케팅 계획 수립 지원	×
교류활성화	- 지역포럼조직 - 성공사례전파 - 회원사 연구소장협의회 등 협의조직 구성	- 기술박람회 조직	- 창업 성공자와 교류 추진	- 투자박람회 개최	- 국제박람회 참가 - 정보마케팅 세미나 개최	×
정보제공	- 온/오프라인 장비, 인력 기관정보 지원	- 기술정보 거래 보망 크	- 차세대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 장비 동향 자료 제공	- 각 부처별 정책자금 연구개발 자금 정보지원	- e-교육훈련	-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레저 장비 산업 공식 통계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전라북도 요트산업단지 조성 추진

- 전북지역에 요트산업단지는 해양레저장비 업체와 부품업체 등 동종업종의 단순한 집적지와 생산, 연구개발, 사업화를 고려한 최적의 산업단지 조성 필요
- 요트생산에 필요한 공동개발 시스템 확립, 단순생산 지양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세계적 수준의 산업발전 방향 제시, 공동기술 협력 및 마케팅체계 구축

-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세부산업 통계 및 DB구축하고, 정부/공공 지원기관이 DB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체계 구축해야하며 제품품질 향상 및 부품업체 협상력 강화
-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사업화, 마케팅, 판매 지원체계 수립하고, 기술개발 지원체계 강화하며, 산학연협력 지원체계와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효과를 통하여 요트산업을 활성화 해나가야 함
- 산업단지입지 지역은 지식기반집적지 개념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생산-R&D-영업·판매가 일체화된 산업의 입지가 충족된 곳으로 선정해야 함

⇒ 전라북도 지역에 제조업 요트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개발사업 지원과 과학기술원의 부품소재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하여 요트부품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SLS(주), 현대중공업 등 민간사업체가 요트제조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7. 기대효과

□ 전략산업과 연계

- 요트산업을 기계부품클러스터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요트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업특화단지 조성 가능
- 지역의 하부기반시설, 또는 사회간접시설의 정비확충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발전의 가속화 내지 수출확대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고용창출효과, 기업유치 및 산업연관효과 발생, 외화획득 가능
- 요트산업을 자동차산업과 같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요트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해양레저 장비산업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요트산업 특화

- 첨단부품산업 · 요트부품산업 집적화단지 실현으로 국내 요트제조산업의 메카 형성
- 요트산업이 도내에 유치되면 관련 부품산업의 진입과, 기존 부품산업체의 활로확대가 기대됨
 - 현재 도내 자동차 3사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 업체당 최고 1조 원까지 투자할 계획임. 이에 자동차 관련 기계 부품 산업의 활황이 기대됨
- 전북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IT기술과 연계한 요트산업 핵심기술 확보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음

□ 관광 자원화

- 산업단지와 향후 비응항 관광어항단지 및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과 연계된 서해 최대 마리나시설과 요트제조 산업과의 거점을 형성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수입증가

- 조세수입과 각종 세외수입의 증대를 유발, 재정력 강화 및 자립도 향상이 예상됨
- 요트건조와 함께 요트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150년 전통의 아메리카컵을 3년 전에 개최한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4억 7,000만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을 거두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명소로 부상함

8. 정책제언

□ 요트산업 타당성 용역 발주

-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요트산업육성 방향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타당성 연구결과를 제시해야함

□ 요트산업 유치 포럼개최

- 정부에서는 해양레저장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는 해양레저 장비 중에서 요트산업에서 관광중심이 아닌 요트제조업중심에 특화하는 방안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요트산업 유치를 위한 추진단 구성

- 이미 경남도, 전남도가 연계한 남해안관광벨트가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요트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요트산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해외 요트산업관련업체 현장 방문

- 요트산업의 중요성과 인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요트산업 레저현장 및 제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요트산업유치 분위기 확산 상태임

□ 요트산업유치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 요트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모호한 상태임. 요트산업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의 지원과 민간자본

을 유치해야 실현가능함. 따라서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해야함

□ 산·학·연·관 요트제조산업 연구네트워크 구축

- 도내에 산·학·연·관이 요트산업관련 연구체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연구체계를 마련하면 타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다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요트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제시

- 요트제조 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기반 인프라 조성이 아주 중요함. 이 중에서 인력양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여 타 지역과 비교 우위를 점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요트산업 유치에 관한 정책방향

- 최근 전라북도를 제외한 경상남북도, 전남지역에서 요트산업 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타도의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함
- 경남도 외에도 최근 경북도가 동해안에 요트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 당진군도 요트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요트산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요트레저가 아닌 요트제조산업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원의 부품소재개발의 지원을 받아 요트산업을 유치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